

“시향 연주회 ‘클래식 토크’로 예습하세요”

지난해 4월부터 토크 진행 전남대 출강 강보란씨
공연 30분전 음악가의 생애·작곡 배경 등 소개
매달 강연...다음달 11일 ‘전람회의 그림’ 해설도

광주시립교향악단(시향)의 341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린 지난 8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 30분 전 미리 관객들이 입장한 가운데 무대 한 편에는 시향이 주최하는 ‘클래식 토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시향은 지난 2015년부터 연주회에서 관객들이 만날 레퍼토리와 작곡가들에 대해 미리 예습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날 연단에 선 해설자는 강보란(33)씨다. 그는 한경진·최유준 전남대 교수에 이어 지난해 4월부터 ‘클래식 토크’를 맡아왔다.

25~30분 정도 이어진 ‘클래식 토크’에서는 작품의 작곡 배경과 음악가의 생애 등을 다룬다. ‘클래식 토크’의 취지에 맞게 강씨는 감상법을 일일이 알려주는 것 보다는 관객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채워왔다. 대신 작품에 대한 정보는 대형 전광판에 큼직한 글씨로 띄워 이해를 도왔다. 강연 사이사이 음악을 짧게 듣는 ‘맛보기’ 시간도 마련했다. 강씨는 ‘클래식 토크’ 대본을 한 달 기량

준비한다. 이번 무대에서 다룬 헝가리 작곡가 바르톡(1881~1945년)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기에 심혈을 기울여 자료를 모았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 바르톡은 우리와 가까운 시대를 살았어요. 바이올린과 첼로의 그늘에 가려졌던 비올라가 독주악기로 떠오른 데는 바르톡의 영향이 큼니다. 시향이 연주하는 비올라 협주곡은 바르톡이 남긴 14쪽짜리 스케치 악보를 비올라리스트 티보 셸리가 완성한 버전입니다. ‘젊은 야만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도전과 실험 정신이 강했던 바르톡의 성향을 가장 잘 반영했죠.”

이날 공연 주제인 ‘슈만의 봄’과 맞닿은 슈만의 교향곡 ‘봄’을 설명하면서는 “봄하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냐며 관객에게 질문도 던졌다. 관객들은 수줍은 모습으로 비발디, 멘델스존, 베토벤, 차이콥스키, 브람스 등의 작곡가를 나열했다.

“슈만의 교향곡은 봄을 다룬 여느 작품들과 다른 분위기가 느껴질 거예요. 슈만의 봄은 마른 숲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격



시향 ‘클래식 토크’ 진행을 맡은 강보란씨.

정적인 모습을 담았어요. 그는 클라라와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면서 30분 넘는 교향곡을 나올 만케 스케치했어. 저 역시 작곡에 몸 담았기에 슈만이 어떤 마음으로 곡을 만들었는지 감히 상상해보게 되네요.”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강씨는 국제현대음악협회·카메라타 전남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하고 전남대에 출

강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다수의 청중들은 차분히 제 해설을 듣지만 청소년 단체 관객이 몰려오면 분위기는 금세 어수선해져요. 그럴 때는 대학 강의할 때 경험을 살려 목소리를 높여 분위기를 빠르게 전환시킵니다. ‘클래식 토크’도 대학 강의와 마찬가지로 음악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씨의 말처럼 모든 관객이 클래식 강연에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입장객이 늘어나고 무대 뒷편에서는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새어나오지만 강씨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다.

예습의 힘은 생각보다 컸다. 연주를 듣다 보니 무심코 스쳤을 뻔한 대목들이 강씨의 설명을 들은 뒤로는 강렬하게 다가왔다.

“클래식 공연이 좋았다는 관객은 많지만 왜 좋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작곡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관객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보란씨의 해설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시향 정기연주회 ‘교향악축제 프리뷰: 전람회 그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요국악공감’ 씨김곳으로 올 첫 무대 연다

15일~12월 27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42회 공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무료 국악공연을 펼치는 국립남도국악원 ‘금요국악공감’이 오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42차례 펼쳐진다.

공연에 앞서 남도국악원은 지난달까지 공모를 진행해 전국의 공연 참여 단체 20개를 선정했다.

‘금요국악공감’의 15일 첫 공연은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씨김곳’으로 꾸며진다. 씨김곳은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라도 지역에서 행해지는 천도이다. 이날 ‘초가방석’, ‘순긋 쳐올리기’, ‘제석곳’, ‘늑올리기’, ‘희살’, ‘씨김’, ‘고풀이’, ‘길뉘음’, ‘액막음’ 순서로 만난다. 유하영(주무), 지선화, 나승희, 오혜원, 양혜인, 박신영씨 등이 출연한다.

22일 무대에는 악회 ‘공만고’가 초청돼 ‘풍류 시나위’, ‘정성곡·산령산풀이’, ‘민속약 시나위’ 등으로 구성된 공연 ‘오메풍류’를 선보인다. 이어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기악합주 ‘씨김’,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씨김곳’.

가, 전통춤 ‘이매방류 살풀이’ 등을 무대에 올리는 ‘국악의 향연’ (29일)을 공연한다.

4월에는 남도국악원 음악극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5일), 최신아 무용단 ‘남북의 환희’ (12일), 기악합주 ‘사색사유’ (19일), 허정승·강김원의 ‘귀한 소리’ (26일)가 무대를 꾸민다.

이외 ‘타구에 흐른 민족예술’ (연변예술단·5월17일), ‘꽃, 꽃, 꽃’ (스트링 앙상블·6월21일), ‘잡가시러나, 놀랑’ (에결밴드·7월19일), ‘감각의 발견’ (헤이스팅·8월

23일), ‘에인열전’ (에인정·9월20일), ‘우봉의 지취’ (이매방춤 보존회·10월25일), ‘덩기덕 콩덕’ (루트머지·11월15일), ‘판소리 동화 ‘안데르센’ (동화 입과 손·12월 20일)도 관객을 만난다.

올해는 공연 1시간 전부터 좌석 번호를 배부해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 공연 당일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6시 35분 십일시 사거리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문의 061-540-4031-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승찬 마음 515대표
한국공간디자인협회장 취임

이승찬(사진) 마음 515 대표가(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 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최근 단독 출마해 당선된 후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아 2년 임기를 시작한 이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수석부회장은 광주여자대학교 이남규 교수가 선출됐다.

지난 1993년 출범한 광주인테리어디자인협회(KIDS)가 모태인(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KOSDA)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중이며 전국에서 정회원 150명, 준회원 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공간디자인 전국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 관련 세미나·포럼·전시 해외연수 등도 열고 있다.

이 회장은 광주시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마을 자문위원,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515갤러리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3·1운동 100주년...시집 발간 잇따라

광활한 시공간 흠어져 있던 이야기 담아

실록 ‘역사 논픽션 3·1운동’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자체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3·1운동을 주제로 한 논픽션과 3·1운동100주년을 기념하는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먼저 현직 기자들로 구성된 논픽션 그룹 실록이 펴낸 ‘역사 논픽션 3·1운동’ (한울)은 광활한 시공간에 흠어져 있던 당시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논픽션 그룹 실록은 지난 2017년 만들어진 모임으로 알고 있지 않던 사실 이야기를 기록하는 단체다. 여기에는 장흥 출신 김용출 기자가 비롯해 언론인들이 필자로 참여한다.

책은 논픽션을 표방한 만큼 3·1운동을 다룬 기존 역사책들과는 서술 방식이 다르다.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분석하는 것이 아닌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의 장면을 3인칭 소설처럼 실감나게 그린다. 물론 논픽션인 만큼 내용은 필자가 가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각종 자료 등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다. 인물이나 배경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독자가 별다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책에는 독립선언의 계기가 된



사건, 민족 대표 등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준비하는 과정, 3월 1일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지는 과정이 묘사돼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은 3월 1일 이후 전국으로 번져간다. 지식인과 학생, 종교인이 주도한 운동부터 노동자, 농민, 기생, 부녀자 등 각계각층이 시위 과정에서 흘린 피와 땀이 더해진다.

무엇보다 책에서 조명하는 3·1운동의 시공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쿄에서 벌어진 2·8독립선언과 상하의와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미국과 파리에서 이루어진 노력들도 담겼다. 이로써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헌법 문구의 의미가 조금씩 완성돼간다.

먼저 책에는 독립선언의 계기가 된

스토리과 시가 접목된 근대문화유산

김재석 시인 ‘목포근대역사관’

강진 출신 김재석 시인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시집 ‘목포근대역사관’ (사외재)은 근대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스토리와 시가 접목된 작품집이다.

혹자는 목포를 근대문화유산답사 일 번지라고 한다. 근대문화유산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근대문화유산을 가운데 구 목포일본역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구 동본원사 등은 중요한 유산들이다. 시집에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과 2관에 전시된 자료들에서 소재를 발굴한 작품이 담겨 있다. 시인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창작된 적잖은 작품이 수록돼 있는 것이다.

“뻔뻔하다// 나 같으면/ 진즉/ 할복 자살했을 것을/ 지금까지 버티다니// 수탈로 일관한 생이/ 지시한 대로/ 따랐을 뿐이랴니/ 이런 어처구니나// 목숨을 구걸한 생각이 없다면/ 빠져 떠나갈 말만/ 내뱉는 것을 보면// 조선 총독부터럼/ 끝나고 싶지 않으면/ 목



바로 하라고/ 겁이라도 줘야 하나 // 철면피다”(‘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전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시대 조선 농민의 수탈기관이었다. 1908년 일제가 설립된 회사로, 일제의 우리나라 경제의 착취와 독점의 대명사였다.

김 시인은 “문화와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였음에도 문학성이 반영되지 않는 시를 낳으려고 애썼다. 시집에는 제목이 서술형인 풍자와 해학이 갖든 긴 제목의 시들이 많이 실려 있다”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시집인 이 시집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인은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까마귀’, ‘목포자연사박물관’, ‘강진시문학박기념관’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짚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 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